

광주시장·전남지사 송·신년 기자회견

“AI-그린뉴딜 사업 본격 추진”

이용섭 광주시장

인공지능 중심도시 실현
광주형 일자리 성공 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주력



민선 7기 광주시는 출범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역대 그 어느 민선 시대보다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는 민선 7기 들어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는 곳에서, AI기업과 인재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탈바꿈했고,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수식어가 붙은 46건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최근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의미 있는 상만 140개를 수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점도 눈에 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제적 대응과 대구와의 병상연대,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점도 큰 성과 중 하나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성과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다. 23년만에 국내에 건설되는 광주형일자리 GGM자동차공장의 공정률은 현재 80% 수준으로, 내년 9월 연 10만대 생산규모의 완성차 공장이 문을 연다. 각-간접적 일자리만 1만여개에 이른다.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뽑은 올해의 광역단체장 우수정책 대상도 받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8일 송·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올해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의 원년이기도 하다. 첨단 3지구에 들어서는 국가인공지능융복합단지는 2025년까지

4116억원(10년간 1조원)을 투입해 국가데이터센터 등 AI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민선 7기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 6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내년 1월 개청을 앞두고 있다. 올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성과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광주공동체를 지켜낸 사실이다.

◇새해엔 15대 주요 정책 추진에 역량 결집=광주시는 민선 7기 전반기 동안 혁신과 소통으로 이룬 100대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15대 주요정책을 추진해 더 큰 광주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2021년 초 국내 유일의 '국가 AI융복합단지'와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을 갖춘 GPU기반 '국가AI데이터센터' 착공이다. 또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광주 실현을 위한 광주형 AI-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점도 기대를 모은다. 시는 내년부터 광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육아수당 480만원(2년간 매달 20만원씩)도 지급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에도 나선다. 지역 숙원 사업인 광주 공공화 이전 문제는 광주-전남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방역·경제 회복에 역량 집중”

김영록 전남지사

도민 협조로 성공적 방역
국고예산 7조원 시대 등 성과
청정·그린 8대 전략 추진



전남도의 새해 도정 목표는 '더 새로운, 더 청정한, 더 행복한 으뜸 전남 실현'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청정과 그린, 바이오·첨단, 매력· 으뜸, 행복·이음 전남의 8대 전략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와 유례없는 재해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소상공인,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본 뒤, 주요 성과와 내년 도정 주요 목표를 공개했다.

◇코로나 19 방역과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19 방역에 협조해준 도민에게 사의를 표했다. 전국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남은 도민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당국 통제 범위에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견뎌 준 도민을 위로했다. 실제 2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5만7680명으로, 일 평균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전남

의 신규 확진자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인다. 10만 명당 발생률도 29.5명으로, 서울(182.16명), 대구(315.54명), 부산(50.94명), 대전(53.52명), 광주(72.01명) 등 타 사·도보다 현저하게 낮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올 한 해 거둔 주요 성과로는 ▲분예산 9조2000억원, 국고예산 7조7000억원 시대 개막 ▲여수·광양·울진·순창 대개조 사업·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등 정부 공모사업 190건, 국비 1조 6343억원 확보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13개 국공립 기관 유치 등을 꼽았다. 또 ▲6년 연속 일자리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목표·영양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농어업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 마련

의 신규 확진자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인다. 10만 명당 발생률도 29.5명으로, 서울(182.16명), 대구(315.54명), 부산(50.94명), 대전(53.52명), 광주(72.01명) 등 타 사·도보다 현저하게 낮다.

김 지사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청정한 전남의 불투명성과 의로운 역사·문화, 민주·평화·인권 등 시대정신이 주목받고 있다”며 “더 새로운, 더 청정한, 더 행복한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청정과 그린 등 전남의 8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8대 전략 추진을 위해 ▲감염병 백신과 면역치료 중심의 ‘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광사광가속기 유치 지속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 관광방문의 해’ 추진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등 핵심 SOC 사업 국가 계획 반영 등 29가지 세부 계획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남의 8대 전략에 앞서, 코로나 19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방역과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에 전남도의 역량을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석열 23.9% 1위...이낙연·이재명 나란히 18.2%

리얼미터 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36.7%

KSOI 조사는 이재명 1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치고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경남(4.6%p ↑), 서울(4.5%p ↑), 인천·경기(4.3%p ↑), 광주·전라(3.9%p ↑)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각각 2.4%포인트와 1.2%포인트 하락하면서 나란히 18.2%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지지기반인 광주·전라에서 9.0%포인트 빠졌다. 이 지사 역시 광주·전라에서 6.0%포인트가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41명을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은 전월보다 4.1%포인트 상승한 23.9%로 1위를 기록했다. 윤 총장이 이 조사에 이름을 올린 지난 6월 이후 단독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전·세종·충청(4.7%p ↑) 부산·울산·

전남도도 상승하며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선 동시에, 2위와의 격차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밖인 5.7%포인트로 벌렸다.

다만 여론조사별로 차기주자 지지율의 편차는 여전히 적지 않은 흐름이다. 전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2월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23.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16.8%)와 윤석열 총장(15.0%)이 뒤를 이었다. 지난 26일 전국 성인 1006명을 조사한 결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바짝 다가서며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2008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보다 2.8%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상승한 59.7%로, 출범 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백신 충분히 확보...2월중 접종 시작 가능할 것”

올 마지막 수보회의 주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수용자·종사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백신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보의 투명함 공개다. 백신도 마찬가지”라며 “보안사항 외에는 정부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왔고, 그대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내 백신 개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방역과 백신, 치료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백신은 세계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빠르게 성공한다면 코로나 극복의 또 다

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선 “우리가 일평균 1천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동안 미국은 평균 23만명, 일본 2천800명 등을 기록했다. 국민이 한마음이 돼 거두고 있는 성과”라며 “국민들께 경의와 감사를 바친다.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내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 국민들도 걱정이 클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한번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소회에 대해 “전 세계 대유행 속에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다.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비상한 각오로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